



규현, '더 짠투어' 고정 멤버 복귀

“가성비 좋게 재미있게 놀다 오고 싶었다”

군 대체 복무를 마친 가수 겸 방송인 규현(31·사진)이 tvN 예능 '더 짠투어' 고정 멤버로 복귀 소식을 마쳤다. 지난 17일 시작한 '더 짠투어'는 가성비 좋은 여행 코스를 소개해 사랑받은 '짠투어' 포맷에 새로운 멤버들을 더한 시즌2 격이다. 규현은 18일 구로구 신림동 라마다서울 신도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챙겨보는 편인데 '짠투어'를 하면서 가성비 좋게 재미있게 놀다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 그룹 활동을 해서 화려한 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민박집을 다니며 로컬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짠투어’ 속 여행 포맷이 “제 스타일과 맞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높은 곳에 올라가 자연과 경치를 만끽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다른 멤버들의 설계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하다 보니가 남는 게 많았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규현은 ‘강식당2’, ‘신서유기7’에 이어 ‘더 짠투어’까지 tvN 예능에 출연 예정인 중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 방송사를 가리지는 않는다. ‘tvN의 아들’이라 불리는 호칭도 좋지만, 모두의 아들이 되고 싶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더 짠투어’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소비하는 ‘가성비’에 더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마음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인 ‘가성비’라는 콘셉트가 추가됐다. 연출을 맡은 안제민 PD는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에 대해 “기존에 한정된 예산에서 여행하는 콘셉트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한 번씩은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도 있는 ‘가성비 투어’를 신설했다”며 “멤버들이 미션을 통과할 수 없어 짠투이는 투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그맨 박명수(49)도 지난 시즌에 이어 여행을 함께한다. 안 PD는 “기존의 짠투어를 알고 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며 “프로그램이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이번 시즌에도 함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 짠투어’에는 규현, 박명수 외에도 모델 한혜진, 개그맨 이용진이 합류해 각자의 개성 있는 여행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방송. /연합뉴스

“모든 선수들 에이스 만들 것”

안정환, JTBC ‘몽쳐야 찬다’ 축구팀 감독

이만기·허재·이봉주 등 스포츠 스타 대출동

야구, 농구, 배구, 씨름, 테니스, 마라톤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 감독의 지도 아래 뭉친다. 지난 13일 방송을 시작한 JTBC ‘몽쳐야 찬다’는 대한민국 스포츠 ‘일인자’들이 대결을 통해 조기 축구계의 새로운 전설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스포츠 예능이다. 이만기(씨름), 허재(농구), 양준혁(야구), 이봉주(마라톤), 여흥철(체조), 심권호(레슬링), 진종오(사격), 김동현(이종격투기) 등이 선수로 출연하며 ‘몽쳐야 찬다’ 시즌1에 출연한 방송인 김용만, 정형돈, 김성주가 다시 한번의 기투합했다. 안정환은 18일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 호텔에서 열린 ‘몽쳐야 찬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참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스감을 밝혔다. 새내기 감독인 그는 선배 스포츠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추게 하고 팀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았다. 안정환은 “예능으로 축구를 좀 더 친숙하게 보여줄 수 있고, 프로그램 안에 씨름, 농구, 야구 등 모든 종목이 있어서 다 같이 여러 스포츠 종목이 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취지가 좋아 감독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몽쳐야 찬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선 날고 기는 선수들이 축구 물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해 당황해하다가 연습을 거듭하며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이 관련 포인트다. 안정환은 “우리 팀엔 에이스가 없다. 에이스가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웃으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선수들이 다 에이

스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어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한 선수들이라 다른 길 접해보지 못한 것 같다.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걸 알려드리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초반이라 선배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제게 많이 혼나실 것 같다”며 웃었다. 중계를 맡은 김성주는 “중계하는 제 입장에서 에이스가 보인다”며 “이봉주는 심장이 4개인 것처럼 뛰어나다고 여흥철은 체조 선수라 그런지 어마어마한 점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지경 책임피디(CP)는 “‘몽쳐야 찬다’가 40~50대 중년 남성들이 패키지 여행을 통해 친구들과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을 담았다면 ‘몽쳐야 찬다’는 안정환이 감독으로 재도전을 하고 각 분야 레전드 선수들이 축구라는 낯선 분야에서 처음부터 재도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며 ‘재도전’ 키워드를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 /연합뉴스

‘라이온 킹’ 내달 17일 국내 개봉



영화 ‘라이온 킹’이 오는 7월 17일 국내 개봉한다고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18일 밝혔다. ‘라이온 킹’은 이날 전 세계 최초 동시 개봉한다. 북미에서는 7월 19일 개봉한다. 1994년 동명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이 영화는 아버지를 잃고 삼촌 스카(치웨텔 에지오프)한테 왕위에서 쫓겨난 삼바(도널드 글로버)가 날라(비운세)와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와 왕좌를 되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은 당시 북미와 전 세계에

서 최고 흥행과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세웠으며 뮤지컬로도 제작돼 브로드웨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언맨’ 시리즈와 ‘정글북’ 존 파브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도널드 글로버, 비운세, 제임스 얼 존스, 치웨텔 에지오프, 세스 로건, 빌리 아이크너가 더빙에 참여했다.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설적 가수 엘튼 존의 음악의 향연도 펼쳐진다. 이날 ‘라이온 킹’의 공식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연합뉴스

조원선, 싱글 ‘그래 그건 그렇고’ 발표

흥 오른 멜로디·특유의 음색 돋보이는 곡

싱어송라이터 조원선이 1년 만에 새 싱글을 낸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는 조원선이 23일 신곡 ‘그래 그건 그렇고’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원선이 작사·작곡한 ‘그래 그건 그렇고’는 담담하게 이별을 맞은 뒤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노랫말이 담겼다. 흥이 오르는 기분 좋은 멜로디와 조원선

특유의 음색이 돋보인다. ‘음색 퀸’으로 불리는 조원선은 1999년 혼성그룹 롤러코스터를 결성해 활동하며 ‘내게로 와’,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슬관’, ‘라스트 신(Last Scene)’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09년 전곡 작사·작곡한 첫 솔로 앨범 ‘스왈로우’ (Swallow)를 냈으며 9년 만인 지난해 존박과 듀엣한 싱글 ‘서두르지 말아요’를 선보였다.



또 지난해 12월 KBS 2TV 드라마 ‘죽어도 좋아’ OST 곡 ‘또 하루’를 공개했으며, 가수 진보의 리메이크 앨범 ‘달리기’에 보컬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7	50 인간극장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15 꼬마버스스타요(재)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수상한 장모	00 탐동명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최고다! 호기심딱지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우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마사와 곰 40 아빠 찾아 삼만리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봄밤(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한식의 마음(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애니갤러리 30 런닝맨2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 MBC 뉴스 25 봄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EBS 초대석(재)
1	00 별의별 중계 50 전국이장회의(재)	00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지식채널e 40 박명(재)
2	40 2019 코리아컵 제주 국제제조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0 꼬마버스 타요 45 로보카 폴리(재)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30 뽀롱뽀롱 뽀로로(재) 45 출동! 슈퍼왕스(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우만만	30 구해줘! 홈즈 스페셜	00 SBS 스페셜	15 세미와 매직큐브 40 두근두근 방방(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5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30 페파 피그(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00 특!특! 보니 하니 25 화산섬의 비밀 45 긴급상황 우리 몸 X파일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TV블로그 쏘자락	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30 생방송 판다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영재발굴단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4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9	00 KBS 뉴스 9				45 극한직업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슈퍼 40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0 라디오스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55 EBS 초대석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글로벌 특선다큐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6월 19일 (음력 5월 17일)	
 子	48년생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60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망을 얻는다. 72년생 손해만 보고 손 털고 일어난다. 84년생 공간에서 인심을 낸다.	 午	42년생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54년생 힘들고 배고픈 날이다. 66년생 자녀를 믿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8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망을 얻는다.
 丑	49년생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61년생 준비된 자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 73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85년생 불편한 대인관계가 개선된다.	 未	43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5년생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라. 67년생 순리를 따르면 만사형통이다. 79년생 의리를 지키면 그에 상응한 보답이 있다.
 寅	50년생 결과보다 과정에 더 의미를 두라. 62년생 배신을 당할 흉한 운세이다. 74년생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86년생 때로는 효자보다 약자가 낫다.	 申	44년생 하는 일마다 막히니 한숨만 나온다. 56년생 마음만 급하고 되는 일이 없다. 68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80년생 원한살 일은 절대하지 말라.
 卯	51년생 나의 진심을 몰라주니 아속하다. 63년생 일단은 믿고 기다려 보자. 75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87년생 지나친 양보는 미덕이 아니다.	 酉	45년생 가끔은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다. 57년생 욕심을 줄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69년생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 81년생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辰	52년생 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64년생 작은 잘못이 침소봉대된다. 76년생 인정에 끌려 대의를 망치지 말라. 88년생 나를 인정해주는 자를 만난다.	 戌	46년생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58년생 실속 없이 바쁘지만 하다. 70년생 순리에 역행하면 고생길이 열린다. 82년생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巳	41년생 모처럼 하루가 뽕 뚫렸다. 53년생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이다. 65년생 할 수만 있다면 복자부당이 최선이다. 77년생 머릿속이 복잡하다.	 亥	47년생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것이 이롭다. 59년생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71년생 애정 문제로 고민하겠다. 83년생 약간의 금전 손실이 우려된다.